

# 일중 김충현의 가학배경과 서예사적 공헌\*

The Family Study Background and the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Calligraphy of Iljung Kim, Chunghyeon

김 수 천 (Kim, Su-chon)\*\*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일중 서예의 공헌 |
| 2. 梧峴에서 본받은 민족혼  | 5. 맺는말       |
| 3. 家學으로 이어진 문예정신 | <참고문헌>       |

## < 초 록 >

일중 김충현은 활동기간이 길고 한국서예사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의 공헌을 간추려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 후학들에게 분명한 모습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행적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대표적인 공헌을 네 가지 측면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서예교본제작을 통한 서예의 보급, 고체창조를 통한 한글영역의 확장, 자가풍으로 일중특유의 한문과 한글서예를 개척한 것은 이미 서단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일중의 이론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근역서보 출간이 갖는 의미를 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은 일중의 서예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家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중의 배후에는 한일합방 때 항일을 한 증조부 김석진과 조부 김영한의 정신을 본받아 서예, 한학, 절의, 금석학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문예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일중가의 역사를 모르면 일중서예의 진수를 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일중이 살았던 오현은 서슬 퍼런 일제치하에서도 민족의 얼을 곳곳에 지킨 곳이었다. 오현에는 4대가 모여 대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우리 고유의 풍습을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애국은 흥이나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일중서예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생애사 연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느낀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소득이었다.

要語: 고체, 창신, 오현, 가학, 민족혼

\* 본 논문은 2015년 원광대학교 연구지원금을 받아 연구된 것임.

\*\*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예술학과 교수, 원광서예문화연구소 소장(cnlwjd@hanmail.net)

접수일: 2016년 12월 3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6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ABSTRACT>

Since Iljung Kim, Chunghyeon worked for a long time and contributed to the history of Korean calligraphy very much, it is not easy to summarize and introduce all of his contributions. However, in order to deliver his contributions to the younger scholars clearly, I decided to show his representative contributions in four aspects as I think that they should be explained thoroughly. Providing calligraphy by creating a calligraphy textbook, expanding the area of Korean language by creating old-style writing and developing own Chinese character writing and Korean calligraphy are already well-known facts in the calligraphy area. In this thesis, I add the meaning of publishing Geunyeokseobo, which is a theoretical contribution of Iljung.

The thing that has been newly found in this study is that Iljung's calligraphy was influenced by the family study which handed down for generations. Emulating the spirits of his great-grandfather Kim, Seokjin and grandfather Kim, Yeonghan who resisted to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he reflected the comprehensive literary consciousness in calligraphy, poetry, epigraphy, seal engraving etc. I have realized that I cannot discuss the essence of the calligraphy of Iljung without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Iljung's family.

Ohyeon where Iljung lived is the place that the spirit of Korean was kept strongly eve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Ohyeon, 4 generations got together and created a large family. Even though they were poor, they maintained the traditional customs and lived sincerely. The history of Ohyeon proves that patriotism can be kept by culture, not only by guns and swords. The study on the calligraphy of Iljung is not a simple study of personal history; it is a study of the spirit of Koreans. That is the most valuable lesson in this study.

Key words: Old-Style Writing, New Creation, Ohyeon, Family Study,  
the Spirit of Koreans

## 1. 머리말

一中 金忠顯(1921~2006)은 20세기 한국서예발전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한글과 한문서예에서 일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서예교본을 제작하여 초·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서예에 뜻을 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해방 후에 일중은 문교부의 예술위원으로 임명되어 1949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개최를 준비하였고, 선배인 素筌 孫在馨(1903~1981)과 함께 강력한 주장을 하여 서예를 국전에 포함시켰다. 1957년에는 서예학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동방연서회를 창립하여 서예의 실기와 이론보급에 힘썼고, 이어서 일중목연을 통해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으며, 경희대·서울대·성신여사대·동덕여대·연세대학교 등에서 서예를 강의하면서 서예의 문호를 넓힌 것도 일중이 남긴 중요한 행적으로 평가된다.

20세기 한국현대서예사의 중심인물이었던 일중이 역사의 뒤편길로 잊혀져가고 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투병생활로 한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별세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가 작고한 것은 2006년이지만 그에 앞서 10여 년간 병마가 찾아와 거의 활동을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20세기 후반을 풍미했던 일중이 어떤 인물인지를 밝히는데 목표를 둔다. 일중은 단순히 서예만을 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의 행적을 밝히고자 2년 전부터 일중의 가족·친지·제자·지인들을 찾아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본 논고는 일중 김충현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불운을 딛고 일어서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중가문을 일군 가장 큰 저력은 교육이었다. 격동기 일중가문의 이야기는 “나라는 망해도 다 망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 망했을 때 다 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그런 견지에서 일중가문의 이야기는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일깨워준다. 역사학자 크로체(1866~1953)는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라고 했다. 일중서예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의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2. 梧峴에서 본받은 민족혼

일종의 환갑기념으로 발행된 『一中 金忠顯 書集』 맨 앞장에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 20세의 청년 일중에게 보낸 편지글 마지막 부분에 일중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중요와 왕희지를 본받음보다는 조부와 증조부의 절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鍾王 猶其外 造次祖曾義].

정인보는 일중이 서예가로 대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글씨만 모방할 것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할 줄 몰랐던 조상의 정신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중요와 왕희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조부와 증조부의 절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중이 나고 자란 오현에서의 삶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1)</sup>

일중은 1921년 서울시 도봉구 번동 오현의 昌寧尉宮에서 태어난다. 昌寧尉는 순조의 부마 金炳疇(1819~1853)를 지칭하며, 창녕위궁 福溫公主(1818~1832)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나라에서 마련해준 墓幕이다. 복온공주는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의 둘째 딸이다. 불행하게도 복온공주는 13세 때 김병주와 결혼한 후 15세에 죽는다. 복온공주가 죽자 묘소를 정하는데, 그곳이 바로 오현이며 창녕위궁이 자리하게 된다. 훗날 사람들은 이곳을 “공주묘”라고 불렀다. 창녕위궁은 본래 인조반정 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申景鎮(1575~1643)의 별장이었으며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김병주와 복온공주는 일중의 5대조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일중은 이들이 모셔져 있는 창녕위궁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어린 시

---

1) 오현의 창녕위궁에 대한 이야기는 일중선생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중 선생 가문의 이야기를 모은 『우리 집 세계(世系)』를 참고하였고, 그 책의 저자인 김통년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를 참고하였다. 김통년은 김문현의 둘째아들이며 김충현의 조카다. 집안의 뿌리를 찾기 위해 7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상묘를 답사하고, 그와 관련되는 논문을 검색하면서 『우리집 세계(世系)』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는 중학교 때까지 오현에서 증조부를 중심으로 4대가 함께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2014년 7월 7일 서울 강남에 있는 김단희의 오피스텔에서의 인터뷰.

절을 보낸다. 일중의 조카 김통년이 과거를 회상하며 쓴 『오현』에는 무릉도원을 연상할 정도로 아름다운 오현의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舍廊마당에는 해시계, 괴석이 있고, 반석이 있고, 영산홍, 백철죽, 모란이 심겨진 화단, 매화나무가 있고, 뒷동산에는 밤나무, 감나무, 木水菊, 앵도, 산수유, 은행나무, 진달래, 고목이 있으며, 番房마당 한가운데에는 대감나무와 전나무 길의 洞口까지 늘어서 있다. 큰 전나무 끝난 곳에 우물이 있고, 곁에는 백·홍 무궁화, 구기자, 향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큰 대문 밖 큰 밭에는 오이, 호박, 감자, 고추, 옥수수, 콩 농사를 지었다.<sup>2)</sup>

이곳은 현재 “북 서울 꿈의 숲”이 되어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바뀌었다. 오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어린 시절 일중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자라게 했을 것이다. 오현은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지만, 민족의 아픈 상처가 간직된 곳이기도 하다. 일중의 증조부 金奭鎭(1843~1910)은 고종 때 형조판서를 지냈다. 그는 을사조약을 적극 반대하였고, 나라를 팔아먹은 五賊을 처단할 것을 내용으로 한 상소문을 올렸으나 상소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김석진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잠시 楊根(현 양평군 화양리)으로 이사를 했다가 1907년 오현의 창녕 위궁 묘막으로 들어간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자 조선조 고관들에 대한 유화책으로 작위와 은사금을 주었다.<sup>3)</sup> 김석진에게도 男爵의 작위가 주어졌으나 김석진은 이를 거절하고 합방에 대한 통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다. 김석진은 9월 8일 음독 자살하는데, 한일합방 후 가장 먼저 순국한 인물이었다. 아들 金壽漢(1878~1950) 또한 김석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김영한은 양주군수와

2) 김통년, 『梧峴』(서울: 2014), 24-26. 이 책은 외부에 알리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출판되지 않았다.

3) 후작은 15만원, 백작은 10만원, 자작은 5만원, 남작은 2만 5천원, 조선 왕실의 친인척은 공작으로 이보다 더 많은 50만원 이상의 돈을 받기도 했다. 당시 男爵에게 주었던 2만 5천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이 훨씬 넘는 거액에 해당한다. 작위대상자는 76명이다. 그중에서 8명이 작위를 거절했다. 당시 작위를 받지 않는 것은 벼슬과 재산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제의 감시대상자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에서의 매장을 의미했다(김통년, 『우리집世系』(서울: 2014). ; 이덕일 『살아있는 한국사』(서울: 휴머니스트, 2003), 323).

양근군수를 거쳐 秘書院丞이라는 벼슬을 지냈다. 일제는 김석진이 거절한 작위를 아들 김영한에게 다시 강요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가 권속을 이끌고 도봉구 변동 오현으로 피신한다. 그 후 일본경찰들이 집으로 몰려와 그에게 충구를 들이대는데도 끝까지 일본경찰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집안의 큰 사건이 있는 지 11년 후 일중선생이 태어난다. 벼슬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몰락한 일중가문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sup>4)</sup> 일중이 쓴 『藝에 살다』에 보면 그 당시 가세의 어려운 형편이 잘 묘사되어 있다.

1백 석이라면 적지 않은 농사였으나 식구가 근 40명에 이르는데다 따로이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 항상 쪼들렸다. 더구나 뿌리 깊은 한학자 집안으로 조부님이나 아버님은 봉제사 접빈객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터였으므로 양식이 모자라 점심은 굶기가 일쑤였다.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고 조부님의 친구분 발길이 끊이질 않아 손님접대를 하다보면 40명에 가까운 식구들 양식마저 모자라는 형편이었다.<sup>5)</sup>

김영한은 일제의 신학문을 배격하고 오로지 한학에 문혀 지내면서 자손들의 교육에 몰두했다. 김영한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그의 아들 김윤동, 김순동, 김춘동은 순국한 집안의 자손답게 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향학열을 불태워 훗날 출중한 한학자로 성장한다. 맏아들 김윤동(일중의 부친)은 시문에 밝았으며, 육영 사업에 뜻을 두고 창문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 둘째 아들 김순동은 한학의 실력을 인정받아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학장을 역임했으며, 셋째 아들 김춘동은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를 지냈다. 이들은 부친의 뜻을 받들어 신학문을 하지 않았

4) 일중의 증조부 김석진과 조부 김영한이 살던 곳은 경북궁 근처에 위치한 松岷宮(전 미국대사관 사택)이었다. 이곳은 일중의 5대조인 복원공주가 시집와서 혼례를 치른 곳이었고, 嗣孫 김석진의 집이기도 했다. 김석진은 나라가 망했는데, 이곳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송현궁을 나라에 바치고 양근(화양리)에 집을 짓고 살다가, 동학란으로 그곳에 살 수가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1907년 오현의 창녕위궁 묘막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2014년 7월 7일 서울 강남 김단희 오피스텔에서 김통년과의 인터뷰.

5) 김충현, 『藝에 살다』 (서울: 범우사, 2000), 15-16.

지만,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김윤동은 5명(김문현, 김충현, 김창현, 김응현, 김정현)의 아들을 낳았다. 이들 5형제는 어릴 때부터 한학과 서예를 공부했다. 이 중에서 김문현, 김충현, 김응현은 한국서예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였으며, 김창현 역시 서예를 잘했는데, 그는 한학으로 이름을 더 떨쳤다.<sup>6)</sup> 오현에는 김영한을 찾아오는 한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한학자로 유명한 김응원(함경도), 홍진표(전라도 임실), 최기석(전라도 부안) 등도 한학을 배우러 오현을 찾았다. 김영한은 오현으로 낙향한 후,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쓴 김통년의 『오현』에는 그 당시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현에서의 지냄을 타 가문에서는 구태의연한 봉건대가족제도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된다. 그 때의 광경이 눈에 스친다. 큰 舍廊에 東江 부군께서 坐定하시고 白牙 부군께서 열심히 글을 베끼신다. 작은 사랑에서는 褻人 부군, 一中 부군께서는 먹을 갈아 비문을 쓰시고, 頭篆을 쓰신다. 樓마루에서는 如初 부군께서 열심히 木柱聯을 刻하신다. 云丁 부군께서는 무쇠 火爐에 뜬 숯을 피워놓으시고 北漆을 하신다. 樊溪 부군께서는 큰 사랑, 작은 사랑을 오가시며 지휘하신다. 어린 나는 고아농으신 藥 소금을 땀물에다 조금씩 넣어가며 갈아 향아리에 붓는다. 사랑 마당에서는 山直이들이 板刻할 목판을 이리저리 옮긴다. 이것이 오현이다. 그러나 어느 학교마당보다 더 정겹고 화려하다. 증조할머니께서는 활짝 핀 매화를 감상하신다는 핑계로 舍廊으로 나오셔서 둘러보신다.<sup>7)</sup>

오현은 총칼로 애국을 한 곳이 아니었다. 시문과 서예와 금석으로 조용하게 민족혼을 살린 곳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일중 선생의 서예가 탄생된다.

6) 일중의 5형제는 기본적으로 한학과 서예를 공부했다. 이들은 모두 서예가와 한학자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환갑 때 2폭씩 맡아 한시를 지어 10폭 병풍을 해드릴 정도로 한학과 서예의 기초가 있었다.

7) 김통년, 『우리집의 서예술』 (서울: 2014), 36. 이 책 또한 외부에 알리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출판사를 명기하지 않았다.

### 3. 家學으로 이어진 문예정신

淸陰 金尙憲(1570~1652)은 일종의 14대조로서 일증가문의 가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김상헌은 절의·시문·서예·전각·그림·금석·한글가사문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병자호란은 나라에 큰 위기를 안겨주었지만 일증가문에는 큰 영예를 가져다주었다. 김상헌은 병조호란(1636) 당시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 淸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결사항전을 주장하였던 주전파의 수장이었다. 그는 청나라와의 화의가 성립되자 심양에 잡혀가 심문을 받게 된다. 그때 서울을 떠나 청나라로 갈 때 읊은 시조 한 수가 전한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동 말동 하여라.

김상헌은 6년 동안 청나라에 있으면서 끝내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청 황제의 석방 명령에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拜禮를 하지 않았던 절개는 청인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다. 김상헌의 절의사상을 온전히 계승하고자 한 이는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었다.<sup>8)</sup> 김상헌은 절의로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시문으로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며, 시·서·화·전각에 이르기까지 조예가 깊었다. 김상헌은 연경과 심양에 머무는 동안 시·서·화를 여러 점 모았고, 자신의 자·호 등을 새긴 圖章들을 모아 閣을 지어 보관했다. 김상헌은 “대체로 예로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자는 속된 선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송시열은 “김상헌은 그림의 격조를 매우 좋아하였고, 또 그림을 논평함이 정확하였다”고 말하였다.<sup>9)</sup> 이러한

8) 송시열은 1645년 5월 22일 김상헌이 심양에서 돌아온 직후 ‘淸陰大老’, ‘大義宗主’ 같은 찬사를 써가면서 편지를 올려 한 번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김상헌은 곧 답서를 보내 가을이 돼 기력을 되찾으면 만나보자고 했다. 1646년 4월 송시열은 석실로 김상헌을 찾아가 부친 睡翁公의 묘갈문을 받았다(유준영, “김수증의 은둔사상,” 『권력과 은둔』(서울: 북코리아, 2010), 128).

문예정신은 금석학의 태두로 불리어지는 谷雲 金壽增(1624~1701)과 文谷 金壽恒(1629~1689)에게 이어진다. 김수증은 자신의 독특한 예서체를 창조하였으며, 진경화를 좋아하여 조세걸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진경화를 발전시키는 유래가 된다. 이러한 진경화의 정신은 김수항의 아들 6창(六昌, 昌集·昌協·昌翁·昌業·昌緝·昌立)에게 전승되며, 검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낳게 한다.<sup>10)</sup>

김상헌과 아울러 가학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있다. 김상헌의 형 仙源 金尙容이다. 김상용은 왕희지 글씨를 잘 썼으며, 전서와 해서에 능했다. 김상용은 특히 비문의 頭篆을 잘 썼다. 김상용의 묘지명에는 “국가의 大典禮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篆文 및公私간의 碑額을 보면 공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1)</sup> 오현에는 김상용의 전서, 김수증의 예서, 김수항의 전서, 그리고 김학순이 손자 김병주에게 써주었다는 <천자문>이 전해지고 있다.

오현에서는 조부 김영한을 중심으로 가학이 이루어졌다. 가학은 주로 절의, 시문, 서예, 금석으로 이루어졌다. 일중의 조부 김영한은 대문장가였으므로 한학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았고, 전국의 효자들이 비문을 받으러와 오현의 전나무 길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비문을 짓고, 써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문제작의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北漆’까지 해주었다. ‘배칠’은 김수증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법으로 무쇠 화로에 뜬 숯을 피우고 체를 놓고, 밀초를 먹으로 쓴 비문에 먹이는 것을 말한다.<sup>12)</sup> 여기에서 일중이 한 일은 비문을 짓고 글씨를 써주는 일이었다. 일중의 한문과 서예는 이렇게 실전으로 다져진 것이었다.

조부 김영한의 영도하에 조상들의 先塋을 정비한 것도 오현생활에 있어 빼어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김영한은 오현 뒷산의 나무를 벌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남양주에 있는 퇴락한 선영을 정비하였다. 자제와 손자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하겠

9) 유준영(2010), 127.

10) 최완수, “검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한벽문총』 창간호(서울: 월진미술관, 1992), 90.

11) 이종호, “장동 김문의 문예의식과 김수증의 문예취향,” 『권력과 은둔』(서울: 북코리아, 2010), 205.

12) 김통년, 『우리집의 서예술』(2014), 34 참조.

다. 이 때 일중은 앞장서서 그 일을 도왔다. 선영의 대대적인 정비는 일중선생이 그동안 닦아온 서예의 기량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sup>13)</sup> 김세호는 일중의 1945년 이전의 글씨가 당시에 많은 서예가들이 추종하던 일본이나 중국의 풍토를 따르기보다는 한글 연구를 통해 개발한 우리 글씨가 많았고, 한문글씨에 있어서도 집안에서 내려오던 것을 터전으로 하였다고 보았다.<sup>14)</sup> 일중의 초기서예의 형성과정은 이렇게 가학을 중심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20대 작품이 원숙의 경지에 이른 것 또한 이러한 체험학습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 4. 일중 서예의 공헌

일중은 작가로서의 활동기간이 워낙 길고 많은 행적을 남겼으므로 공헌을 간추려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후학들의 서예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행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논자는 일중의 공헌 중에서 기록할만한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4.1 서예교본제작 -우리 글씨 쓰는 법 출간-

일중이 서예의 길을 걷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전조선남녀 학생작품전이다. 이 대회에서 일중은 한문 작품으로 특상을 받는다. 1938년 6월 4일자 동아일보에는 수상작이 공개되었고, 이어서 6월 10일자 지면에 일중의 수상을 축하하는 글이 소개된다. 일중은 다음해인 1939년에도 동아일보 대회에서 다시 賞을 받는다.<sup>15)</sup> 이 때 출품된 작품은 궁체로서 여기에서 받은 상은 지금의

13) 일중의 12대조인 김수향이 장만하였던 木食洞 寓소가 집안의 묘막이 되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퇴락하여감에 김영환이 자손들을 데리고 선영을 재정비한다. 2014년 7월 7일 서울 강남 김단희 오피스텔에서 김통년과의 인터뷰.

14) 김세호, “일중 김충현의 서예,”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기념특별전 일중 김충현』(서울: 예술의 전당, 1998), 287 참조.

우수상에 해당한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문은 다음과 같다.

중등습자에 입상된 중등학교 金忠顯군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일찍이 三興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매년 특상을 받았고 작년에도 본 전람회에서 특상을 받아서 기쁨을 토했습니다. 군의 필법에는 굳은 信念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손으로 이처럼 건실한 획이 어떠한 씨어지는가 보는 사람마다 놀라지 안은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군의 장래는 정진하는 한 절대 보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sup>16)</sup>

오래 전의 신문이어서 맞춤법과 표현어법이 지금과 다르지만, 그날의 감동을 정감있게 잘 전달하고 있다. 1939년에 받은 상은 일중의 향후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중은 이 대회를 끝으로 더 이상 공모전에 나가지 않는다. 당시는 중학교가 5년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3년 동안 출품의 기회가 남아있었다. 대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로부터 더 열심히 서예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한글서예연구다.

보통학교 재학시절부터 한문서예는 물론 궁체서예(한글서예)로 홀로 공부해 오던 나는 동아일보 공모전의 입상 이후 더욱 열심히 글씨 공부를 했다. 내가 혼자서 한글 서예를 연구할 때는 일제 말기여서 적당한 참고 서적은 물론, 정확한 한글교본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sup>17)</sup>

다행히 일중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궁체자료들이 많아 한글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궁중에서 보내온 封書와 牒書가 한글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일중의 5대조 김병주와 복은공주는 조선 23대 왕인 순조와 순원왕후의 사위이자 딸이므로 궁중에서 보내온 봉서가 많았다. 그중에는 순원왕후봉서, 효정황후봉서, 명성황후봉서도 포함되어 있다.

15)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진조선남녀학생작품전은 최고의 권위가 인정되는 대회였다. 일중이 출품했던 제8회 진조선남녀학생작품전에는 5,000점이 출품되었는데 그중에서 378명을 선발하여 신문에 발표하고, 다시 1주일 후에 38명의 입상작을 선발하여 신문에 발표한다. 동아일보 1939년 6월 7일과 14일자 신문 참조.

16) 1939년 6월 21일 동아일보 “중등습자 소학교때부터 특상받어” 중동2년 김충현.

17) 김충현(2000), 18.

일중의 특출난 점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한글자료들을 연구 분석하여 후학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용 자료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중은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고철자로 쓰던 것을 현대철자로 바꾸어 한글서예의 필법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말한다.<sup>18)</sup> 3, 4년 연구 끝에 『우리 글씨 쓰는 법』(1942)이 완성되었다. 일중은 그 책을 가지고 국학자 정인보를 찾아가 서문을 받는다. 그러나 일제의 한글말살정책으로 책을 발행할 수 없었다. 책은 해방이 되던 해에 『우리 글씨 체』라는 이름으로 고려문화사에서 출판하게 된다. 그때는 이미 한글을 장려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자유롭게 한글서예에 대한 구상을 펼쳐낼 수 있었다. 일중은 한글서예연구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1948년 문교부 예술위원이 된다. 예술위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술원 회원에 해당한다. 이때 그의 나이가 28세였다. 최연소자로 예술위원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중은 해방 후에 승승장구하는 길을 걸었지만, 그의 탄생은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나온 것이었다. 그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세호의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일중이 중등학교에 들어간 1938년은 나라를 빼앗은 일제가 우리 국민에게서 우리들의 말까지도 빼앗기 시작한 해이다. ... 1938년 1월에는 전국에 일본어강습소 1,000여 개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에게 일본어 강습을 지시하였고, 4월에는 중학교의 조선어시간을 없앴으며, 1941년 3월에는 그나마 초등학교에 남겨두었던 조선어시간까지도 없애버렸다. 1942년 9월에 일제는 30세 이하 우리 젊은 이에게서 일본어보급방침을 결정하였고, 10월에는 민족운동협의로 조선어학회 회원을 검거하여 29명을 구속하고, 조선어학회가 발행하던 학회지 『한글』을 폐간시켰다. 우리가 우리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글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를 빼앗은 일제가 우리의 영혼인 우리의 말과 글자를 빼앗기 시작할 즈음 일중은 우리의 글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 연구를 책으로 내고자 하였다. ... 당시 우리글인 한글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고유문화를 찾아 부흥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글을 표현하는 우리의 글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 없던 연구를 일중이 혼자서 해냈던 것이다.<sup>19)</sup>

1945년 고려문화사에서 간행한 『우리글씨체』에 이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

18) 김충현(2000), 194.

19) 김세호(1998), 286.

등학교 서예교본이 출판되었다.<sup>20)</sup> 1946년에 문교부검정교과서로 經緯社에서 간행된 『중등글씨체』, 1955년에 문교부검정교과서로 創人社에서 간행된 『중등서예』와 『고등서예』, 1956년 문교부검정교과서로 學叢社에서 간행된 『초등글씨체』, 1962년 문교부검정교과서로 간행한 『중등서예』가 그것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서예교본도 잇달아 제작되었다. 1945년 간행한 『우리글씨체』에 이어서 1964년에 視聽覺社에서 간행한 『書藝集成』, 1970년 視聽覺教育社에서 간행된 『國漢書藝』, 1978년 視聽覺教育社에서 간행한 『일중한글서예』에 이어서 『우리 글씨 쓰는 법』이 1981년에 증보판으로 나오게 되고 1983년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다시 증보판으로 재간행하게 된다.

일중이 얼마나 서예교본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지는 83년에 편찬된 『우리 글씨 쓰는 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은 한글서예에 대한 기법과 이론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글서예교본과 다르다. 한글의 제자원리로부터 한글의 역사와 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한글연구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1942년도에 완료된 『우리 글씨 쓰는 법』을 여러 번 수정 보완하여 만든 책이었다. 42년도에 만든 책은 궁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1983년에 출간한 『우리 글씨 쓰는 법』은 궁체와 고체를 곁들이고 있으며, 부록으로 편지쓰기와 한글서예의 고전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만드는데 40년이 걸렸다. 일중은 이 책의 의미를 살리고자 설명 하나 하나를 친필로 썼다. 본인이 말하듯이, 이때는 시력이 나빠져서 필획을 구사하는데 무리가 따랐다. 편집후기에 책을 만드는 어려움이 실려 있다.

한글은 글씨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사와 이론이 부족하다. 이점은 한문서예와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일중은 이점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다. 한글서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기본적인 교재가 꼭 필요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글씨 쓰는 법』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遠見이 있었기에 시력이 나빠 눈앞이 어른거리고 세필에 손을 떨면서도

20) 일중은 붓으로 쓴 서예교본 외에도 펜글씨 보급에도 앞장섰다. 1947년 東明社에서 간행한 『배우고 본받아야 할 편지체』에 이어서 1952년 韓美文化史에서 간행한 『펜습자』를 간행했다. 『펜습자』는 6.25때 밀양으로 피난 가서 만든 책이었다.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4.2 한글서예의 확장 -고체의 창조-

한글서예는 일제에 의해 한글사용의 제약을 받는 시기에도 일부 서예가들에 의해 면면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23년 제2회 朝鮮美術展覽會(鮮展)에 惺堂 金敦熙의 <朝鮮文>이 출품되었고, 1929년 제8회와 1931년 제10회 鮮展에 尹伯榮의 <朝鮮諺文>이 입선을 했으며, 같은 무렵인 1929년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제1회 전국학생작품전람회에서 이철경(培花女高3년)의 궁체 <오우가>가 중등부 2등 입상을 했고, 이어서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제8회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에서 김충현(中東學校 2년)이 諺文으로 賞(우수상에 해당함)을 받는다. 한글 궁체의 교과서로 1910년에 南宮 億이 만든 『新編諺文體法』이 있었고, 1933년 이철경에 의해 『궁체 쓰는 법』이 간행되었으며, 1942년 김충현에 의해 『우리 글씨 쓰는 법』이 쓰여진다.<sup>21)</sup>

그러나 해방 전의 한글서예는 주로 궁체가 중심이 되었을 뿐, 다양한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러한 단조로움을 깨고 해방 후에는 한글서예가 다양하게 꽃피우기 시작한다. '1949년 제1회 국전'에 김응현은 <國文草書>를 출품하여 입선을 하였고, 훈민정음체를 바탕으로 <廣開土好太王壺杆>의 전서의 필의를 가미한 한글서예를 썼다. 손재형은 전서와 예서의 필획을 절충하여 새로운 한글서예를 창조하는데 鎭海 <李忠武公銅像銘文>(1951)과 제2회 국전에 출품한 <篆書國文>(1953)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창조적인 한글서예로서 原谷 金基昇을 비롯한 많은 후진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손재형의 한글전서체는 그의 제자 平步 徐喜煥에 의해 계승되어 1968년 제17회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일중도 한글서예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때 탄생한 한글서예가 古體다. 李興雨는 「光復과 새로운 書藝文化의

21) 『우리 글씨 쓰는 법』은 1942년 위당 정인보의 서문을 받아 간행하려고 했으나 당시 일제의 國語抹殺暴政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해방이 되던 해인 1945년에 고려문화사에서 간행된다.

形成』이라는 논고에서 “金忠顯과 한글 古體”라는 이름으로 일중의 고체가 갖는 서예사적 의의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고,<sup>22)</sup> 일중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藝에 살다』를 보면 일중 자신이 고체를 창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한글 고체의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자는 역사도 오래고 글자를 만든 원리(制字原理, 六書: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도 다양하여 조형성이 풍부하나 우리 한글은 한자와 비교할 때 역사도 짧고 자형도 간략하다. 따라서 한자와 달리 한글 서예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sup>23)</sup>

정인보와의 만남은 일중이 한글서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1942년 정인보가 써준 『우리 글씨 쓰는 법』 서문을 보면 일중이 그로부터 한글서예에 대해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83년에 증보판으로 재 간행된 『우리 글씨 쓰는 법』 自序를 보면 일중이 얼마나 스승 정인보가 써준 서문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마치 祖師에서 祖師로 이어지는 심법의 전수와 같은 준엄함이 있다. 일중이 쓴 1983년 『우리 글씨 쓰는 법』 증보판에는 1942년 스승 위당 정인보로부터 받은 서문의 내용을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당시에 정인보를 만난 것은 天佑神助가 작용한 것 같다. 일중에게 『우리 글씨 쓰는 법』 서문을 써주기에 앞서 『訓民正音解例本』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해례본』은 1940년 안동의 이한걸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은 몇 개월간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해 7월 30일에 조선일보에 보도된다.<sup>24)</sup> 『훈민정음해례본』은 특히 정인보와 같이 國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뉴스였다. 그 이야기는 정인보

22) 임창순, 이구열, 이홍우 공저, 『韓國現代書藝史』 (서울: 통천문화사, 1981), 52-55.

23) 김충현(2000), 140.

24) 이 책을 받아 든 방중현, 홍기문은 1940년 7월 30일자 《조선일보》의 학예란에 『원문 훈민정음의 발견』이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 4일까지 5회에 나누어서 『制字解』부터 『用字例』까지 번역하였다. 이것은 훈민정음이 간행된 지 49년 만의 것이었다(김주현, 『훈민정음』 (서울: 민음사, 2013), 125).

의 해석이 부가되어 2년 후 청년 일중에게 서예사적인 의미로 다시 전달된다. 『훈민정음해례본』이 향후 일중서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김창현이 쓴 『우리 글씨 쓰는 법』 발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다.

이 책(우리글씨 쓰는 법)을 이름에는 별다른 참고문헌이 없어 오직 글자의 모양에만 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 다행히 훈민정음의 해례본이 발견됨에 이를 바탕으로 그 題字의 원리를 캐어내고 形質相符하는 이론을 세워 지금 增補를 마치니 다만 정자와 흘림만이 쓰여지던 우리 글씨에 판본을 점화하여 篆隸와 맞서는 古體 새로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우리글씨쓰는법은 처음으로 근거있고 체계화된 완벽한 저서로 나오게 되었다. 이 어찌 홀로 글씨 문화에만 도움이 된다 하리오.

김창현이 언급하듯이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글은 이론적 배경이 없어서 모양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훈민정음해례본』의 발견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주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일중에게 한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고체’를 개발하게 하여 그동안 궁체에 한정되었던 한글서예의 문호를 열게 했다. 일중의 위대한 점은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의 판본체에 전서와 예서의 호흡을 불어넣어 한글고체를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일중이 ‘고체’를 성공적으로 창조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를 한글서예에 적용시켜 작품을 세상에 선보인 것은 60년대로부터 본격화되었으니, 40년에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되고 42년 정인보 선생을 만난 것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의 기쁨이 『藝에 살다』에 생생하게 실려있다.

한글을 전용하거나 한글·한자를 함께 쓰는 현대의 우리로서는 새 각오로 한글은 물론, 국·한문 서예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글자로 懸板도 써야 하고 碑文도 새겨야 하며 작품도 해야 한다. 연약해 보이는 작은 글씨 위주의 ‘궁체’로만 만족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체’는 글자의 크기를 막론하고 필력을 구사할 수 있으니 이 ‘體’의 개발과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바이다.<sup>25)</sup>

25) 김창현(2000), 143.

위의 글에서 일중은 한글 ‘고체’를 창조하고 난 후의 得意와 希望을 전달하고자 한 것 같다. ‘고체’의 창조는 한글서예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만일 일중의 한글 ‘고체’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한국 서예는 지금같이 폭넓은 방향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 4.3 창신의 서예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1943~)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Individual)-일(The work)-타인(Other person)>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훌륭한 ‘창조성’이 나온다고 보았다.<sup>26)</sup>

일중은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일중은 대가가 될 만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타고난 소질을 심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체험기회를 가졌으며, 예술체험의 과정에서 많은 후원자들을 만났다.

일중의 집안에는 궁중에서 온 편지가 많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淸陰 金尙憲(1570~1652)의 14대 손이요 文谷 金壽恒(1629~1689)의 12대손으로 조선조에서 영의정을 9명이나 배출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며, 특히 일중의 5대 조부인 金炳疇(1819~1853)가 순조의 둘째 따님인 福溫 공주에게 장가들어 駙馬가 된 것과 관계한다. 일중은 전해오는 궁체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중은 한글서예로 먼저 이름을 얻었지만, 한문서예에 있어서 더 큰 성취를 했다. 일중은 특히 隸書에 있어 일가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중의 예서는 역대 중국의 작가들과 비교해도 上級에 속한다. 중국의 예서는 漢나라에서 크게 꽃피웠지만 위진남북조를 지나면서 시들기 시작한다. 훗날 당나라 때 玄宗을 위시하여 史惟則·徐浩에 부활하지만 漢나라와 비교가 안 되며, 청말에 금석문 연구의 부흥으로 鄧石如·伊秉綏·何紹基에 의해 새로운 예서가 나오지만, 이

26) 하워드 가드너 지음, 임재서 옮김, 『열정과 기질』 (서울: 북스넛, 2013), 17-18 참조.

역시 한나라의 예서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김세호는 일종의 예서가 갖는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중선생은 漢隸로 일가를 이루었다. 한예가 지닌 멋을 100% 살리고 있다. 한나라 이래로 중국의 예서는 퇴행기로 접어들었다. 그런 예서가 한국에서 다시 꽃을 피운다. 일중은 한예가 지닌 격조를 잘 소화시키면서 자기화에 성공한 작가다.<sup>27)</sup>

김세호가 지적하듯이 일중의 예서는 격조가 높고 창의력이 뛰어나다. 장중하고 호연한 기상과 淸高古雅한 격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漢隸의 품격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일중 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이다. 일중의 연보에 의하면 19세 때 <張遷碑>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권창륜의 논문에 의하면, 그의 예서가 <禮器碑> <張遷碑> <曹全碑> <乙瑛碑> <孔宙碑> <封龍山頌> <石門頌> <西狹頌> <韓仁銘> 등 漢代 傑品을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隸法을 연구하였다고 보았다.<sup>28)</sup> 그러나 일중의 書集에 보면 딱히 어떤 글씨에 근거를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 초기에 쓴 예서도 어떤 특정한 법첩에 구애받지 않고 新意를 마음껏 펼쳐내고 있다. 1943년에 쓴 <半生受用>과 1950년대에 쓴 <禮書二疊> 그리고 1960년에 쓴 <隸書 12屏>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예서는 어떤 예서를 근거로 삼았는지 밝히기 어렵다. 그것은 일중이 예서를 쓸 때 어떤 특정한 법첩을 모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인 기질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는 일중이 주장하는 書論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경동중고등학교에서 일중선생으로부터 50년대에 서예지도를 받았던 이영찬의 술회는 일중의 서예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일중선생께서는 늘 독창성을 강조하셨다. 자신의 획을 긋고 자신의 글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다. 법첩에만 의존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인간이 되라. 그래야 품격

27) 2015년 7월 22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정연구실에서 김세호와의 인터뷰.

28) 권창륜, “일중 선생의 생애와 예술,” 『일중 김충현 서집』 (서울: 경미출판사, 1981), 290.

이 서화에 나타난다.<sup>29)</sup>

이렇게 독창성을 강조하고 법첩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글씨를 쓰라는 50년대의 일중의 서예관은 6, 70년대에 一中墨緣에서 서예지도를 받았던 신두영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

일중선생은 서체자전이 글씨를 망친다고 하셨다. 글자를 기계적으로 조립하면 안 된다는 이론을 가지셨다. 서체자전에 의존하면 남의 글씨를 베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sup>30)</sup>

일중의 예서는 여러 번의 전환기를 맞는다. 그중에서 현격한 변화는 70년을 전후하여 나타난다. 초창기의 예서가 도안적인 느낌을 가미한 외재적인 창작이었다면, 70년대를 전후하여 탄생된 예서는 장중하고 여유롭고 내재적인 충실함이 우리나라에 나타난다. 왜 이 시기에 일중의 예서가 변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었다. 중학교 때부터 일중선생을 사사했던 김세호는 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새롭게 탄생된 일중의 예서는 크고 장중하고 여유가 있다. 이점은 그 이전의 예서와 큰 차이를 느끼게 한다. 왜 이 시기에 일중의 예서가 빠른 속도로 변했을까? 이것은 일중선생이 대기업의 CI<sup>31)</sup>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당시의 재벌기업들이 일중선생으로부터 CI를 받아간다. 삼성, 선경, 럭키, 장기신용은행, 한국투자신탁 등의 기업의 글씨가 바로 그것이다. 60년대 초반의 예서에 비하여 70년대를 전후한 예서는 한눈에 들어온다. 스케일이 크고 스페이스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일중에서의 탄생은 분명 대기업의 CI와 관련지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sup>32)</sup>

29)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서울 인사동 지대방 찻집에서 이영찬과의 인터뷰.

30) 2015년 7월 22일 인사동 지대방 찻집에서 신두영과의 인터뷰.

31) CI라는 말은 Corporate Identity의 약자로서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말한다. 주로 시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기업 로고나 심볼 마크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데 CI 작업은 단순히 회사 이름이나 디자인을 변경한다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사 및 조직의 개혁이나 새로운 비전 확립까지를 포함하는 기업 변혁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32) 2015년 7월 22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정연구실에서 김세호와의 인터뷰.

일중이 대기업의 CI작업에 많은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서예계에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대중들의 서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일중의 글씨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일중선생기념사업회 김재년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이병철회장이 생존할 때 삼성계열의 글씨는 대부분 아버님이 쓰셨다. 현대, 신세계, 동방생명 등 대기업에서 글씨 부탁이 많이 들어왔다. 인사동에 있는 간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님 글씨가 많다. 글씨의 멋스러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회사에서 연이어 부탁이 들어왔다.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서예에 대한 눈높이가 변했다.<sup>33)</sup>

70년대에 일중의 서예가 변한 이유에 대해 김세호는 또 하나의 이유를 들고 있다.

70년대에는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많았다. 그때마다 선생께서는 취중에 현장휘호를 써서 참석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취중이라 객기를 부릴만도 한데 일중선생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취중휘호이지만 속기가 없었다.<sup>34)</sup>

김세호에게 써준 <海庭>, 김준섭에게 써준 <對聯>, 그리고 권창륜에게 써준 <仁壽艸亭>, 정도준에게 써준 <紹軒> 등은 모두 제자들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거리낌없이 써주신 것들이다. 醉筆이라는 흥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발로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바로 70년대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sup>35)</sup>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은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일중은 글씨만 쓰는 작가가 아니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글씨로 사회와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휘호를 통해 제자들과 소통하는 열린 예술의

33) 2014년 7월 1일 백악예원 일중기념사업회에서 김재년과의 인터뷰. 김재년은 일중의 자제분으로서 현재 일중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34) 2015년 7월 22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정연구실에서 김세호와의 인터뷰.

35) 김세호(1998), 290.

선구자였다.

한문과 한글서예를 병행했던 일중은 이들을 한 화면에 끌어들이 혼용하는데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과거에 중국서예사에 보면 五體의 경계를 허물고 이를 융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왕헌지 이후 내려오는 破體書는 각기 다른 서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멀리 청나라 鄭板橋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중은 이를 넘어서 한문 오체와 한글 궁체와 고체를 모두 포함시켜 융화시키려고 했다. 1962년도에 제작한 작품 <井邑詞>가 이에 속한다. 일단 일중의 수중에 들어온 서체는 어떤 글씨를 혼용하더라도 무리없이 조화를 이룬다. 이질적인 성격의 서체를 작품에 동원한다 하더라도 전혀 생경한 느낌을 주지 않고 원융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점은 감상자를 통탄하게 하는 부분이다.

8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난 행초는 예서 못지않게 서예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일중의 행초는 날이 갈수록 전서와 예서를 끌어들이 신묘한 변화와 古色蒼然함을 느끼게 했다. 이것 또한 역대 서예사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의 말년의 행초는 전서와 예서를 가미하고 있지만 원숙한 老境을 느끼게 하고 편안하고 유연함이 있다. 일중의 글씨는 고법의 향내가 짙다. 고전에 충실하고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데도 충실하자는 것은 그가 평생동안 견지한 서예관이었다. 러시아의 문예비평가 시클로프스키(Victor Shklovsky)에 의하면 예술은 일상적인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sup>36)</sup> 일중은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고법을 좋아하되 그것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체취를 담아내는 사람이었다.

36) 시클로프스키(Victor Shklovsky)에 의하면 예술적인 것의 특성은 습관이나 일상적이어서 익숙하게 되어버린 사물이나 사실들을 낯선 것(geffamiliari jation)으로 만드는데 있다. 일례로 걷기는 일상적이고 아무런 느낌도 수반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행위이지만, 무용에서의 걷기는 어떤 느낌을 주는 특별한 걸기로 된다. 詩는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들과 달리 비일상적인 낯선 언어들이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한다(Ann Jefferson 著, “러시아 형식주의,” 『현대문학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37).

#### 4.4 『槿域書譜』의 출간

『槿域書譜』는 일종의 행적 중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대표적인 자료다. 『槿域書譜』는 일중이 1967년 신아일보의 부탁을 받아 칼럼 형식으로 연재한 글이다. 본래 50회를 연재하기로 되었으나 신문사의 요청으로 50회를 더 신게 되었고, 100회가 끝날 무렵 또 다시 신문사와 재계약을 맺어 총 150회를 연재하게 된다. 『槿域書譜』는 신라시대로부터 조선말까지의 한국서예의 명가 150명을 소개하고 있으며 작가의 삶, 작품도판, 작품원문을 담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일중이 저술한 『藝에 살다』에 의하면, 『槿域書譜』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뜻 깊고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

“1967년 나는 신아일보에 槿域書譜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근역서보’란 근역이란 우리나라의 별칭이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역사상의 중요한 명필들의 작품과 생애를 설명하면서 서예의 역사를 훑어보는 것이었다. 신라의 김인문, 김생에서 조선조의 안평대군 김추사에 이르는 1백 50인의 명필 이야기를 1백 50회에 걸쳐 연재했는데 이 ‘근역서보’를 집필하면서 나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했고 명필의 필적을 찾기 위해 소장자를 수소문해야 했으며 뚜렷한 유작이 없는 서예가의 이야기를 쓸 때는 무척 애를 먹었다. 그러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150인의 한국 명필을 집대성한 ‘근역서보’는 나의 서예생활 중 가장 뜻 깊고 보람 있는 일중의 하나로 지금도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낼 생각을 갖고 있다.”<sup>37)</sup>

위에서 보듯이, 『槿域書譜』는 일중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자료였지만 정작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행히 일중 서거 10주년을 앞두고 일중기념사업회 주관으로 『槿域書譜』에 대한 운문작업을 시작하여 이를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sup>38)</sup> 『槿域書譜』는 일중의 서예에 대한 감식안과 한학·금석문에 대한 깊은 조예를 느낄 수 있다. 『槿域書譜』 찬사에서 미술사가 최완수가 밝히고 있듯이, 『槿域書譜』는 葦滄 吳世昌의 『槿域書畫徵』

37) 김충현(2000), 58-59.

38) 김충현, 『槿域書譜』(서울: 한울, 2016).

을 기본자료로 하여 일중의 박학능문의 기량이 찬연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논자는 지난해에 일중의 『權域書譜』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자 “『權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sup>39)</sup>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權域書譜』에 나오는 방대한 인용문헌이다. 일중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미 김기승의 『한국서예사』가 출간되었지만<sup>40)</sup> 일중은 그 책에 근거하지 않고 역사서와 문집을 인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權域書譜』는 대중에게 서예를 알리는 형식의 글이지만 原典을 충실히 인용하면서 내용 전달을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무게감이 실린 특수한 갈림이다. 논자는 일중이 『權域書譜』에 담으려고 했던 정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인용한 책을 모두 발췌하였다.

東國金石評, 耳溪集, 書鯖, 海東金石總目, 眉叟記言, 金石總攬, 破閑集, 權域書彙, 大鑛國師碑, 李相國集, 東國文獻畫家編, 高麗史, 牧隱集, 慵齋叢話, 筆苑雜記, 國朝人物考, 圃隱集, 四佳集, 大東韻玉, 海東雜錄, 冶隱集, 八景詩卷, 潛谷舊錄, 華苑雜記, 阮堂集, 東國文獻筆苑編, 燃藜室記述, 文宗實錄, 海東名臣錄, 六臣遺稿, 海東號譜, 文獻備考藝文考, 警修堂集, 晉陽世稿, 國朝寶鑑, 龍泉談寂記, 寄齋雜記, 圓嶠書訣後編, 耳溪集, 栗谷集, 退溪集, 簡易堂集, 稗官雜記, 月沙集, 朝野輯要, 溫裕齋集, 尹宗儀跋, 拙翁集, 東溟集, 澤堂集, 芝峰類說, 龍洲集, 圓嶠書訣, 谿谷集, 於于野談, 孤竹遺稿, 四崖集, 舊忠紆難錄, 震旦人物, 人物考, 米壽記言, 誌狀, 公私見聞錄, 芝村集, 熱河日記, 李參奉集, 白下書帖, 圓嶠書帖, 楓阜集, 樵山襍著, 礪齋集, 龍飛御天歌, 保閑齋集, 月汀漫錄, 紀年兒覽, 行蹟, 河西集, 兼山集, 西郭雜記, 列聖御製肅宗大王, 成宗實錄, 月沙撰狀, 誌狀輯略, 列聖御製宣祖大王, 竹窓閑話, 龍西集, 通文館志, 松溪各體篆帖, 芝湖集, 近齋集, 外傳, 盎葉記, 星湖僊說, 觀瀾亭帖跋, 臺山集, 謙齋集, 定齋書帖, 三淵集, 月谷集, 壺山外史, 錦衾實記, 晚香齋草千字帖, 晚香齋書帖, 經山集, 豹菴畫帖, 金陵集, 青城集, 並世集, 凌壺集, 丹陵遺稿, 清脾錄, 燕巖集, 歸恩堂集, 內閣日記, 歷代畫史彙傳, 天竹齋劄錄, 俟菴年譜, 茶山畫幀, 訥人書縣額, 宛丘遺集, 石友忘年錄, 堀堂集, 圖書解題, 海鄰尺索,

39) 김수천, “權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64집 (2015), 109-136.

40) 김기승, 『한국서예사』 (서울: 대성출판사, 1966).

恩誦堂集, 藝林甲乙錄, 小棠集, 海鄰尺素, 皎亭詩集, 碧梧堂遺稿, 文品案, 槿域書畫徵, 國朝名臣錄, 國朝榜目, 錢牧齋集, 國朝名臣錄, 六臣傳, 世祖實錄·人物誌, 誌狀輯要 約軒集, 丙辰丁巳錄, 紀年通考, 燃藜室別集, 龍門簡牘, 尤庵撰記, 玄淵集, 八谷集, 簡易堂集, 人物考·人物志, 樊庵集, 崧陽耆舊錄, 朝野輯要, 於于遺稿, 萬姓譜, 名臣考, 大巖集, 松湖墨蹟帖, 諡狀, 白谷集, 清陰集, 國朝文科榜目, 詩話彙成, 老洲集, 東國文獻畫家編鹿門集, 閒靜堂集, 溪湖集, 思頻集, 芍玉集, 海藏集, 哲宗實錄, 紅藥樓懷人詩錄, 辛亥吟杜集.

일중이 『槿域書譜』를 쓰면서 인용한 책은 무려 170여 종에 달한다. 『槿域書譜』는 사서, 금석문, 문집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글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인용 자료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졌으므로 한문의 독해 능력이 없으면 글을 쓸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점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학적인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모으고 인용하게 되었을까. 논자는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자 책과 대조를 하던 중 일중의 『槿域書譜』가 오세창(1864~1953)이 저술한 『槿域書畫徵』<sup>41)</sup>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에는 우리나라의 역대 서화가 1,117명의 인적사항과 활동을 역사서나 문집에 의거하여 발췌한 것으로 서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책이다.

그러나 인용문의 출처빈도의 측면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중의 『槿域書譜』는 자료의 활용 면에서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을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작가선정에 있어서도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을 모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세워 쓴 독창적인 글임을 알 수 있었다. 『槿域書譜』에 실린 150인 중에서 116인을 제외한 34인은 일중이 추가로 선정한 인물이었으며, 이 추가된 인물 중에는 절의와 관계된 인물이 가장 많다. 이것은 절의를 중히 여겼던 일중 가문의 배경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槿域書譜』의 성격에도 일중 가문의 가학적인 배경이 다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41) 오세창, 『국역 근역서화징』 (서울: 시공사, 1998).

## 5. 맺는말

본문에서 밝혔듯이 초년기의 일중 서예는 일제강점기 때 오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난을 받으면서 피어난 예술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은 일중의 서예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家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당시 중국의 법첩만을 공부했던 작가들의 경우와 크게 구분된다. 일중의 배후에는 한일합방 때 항일을 하다 자결한 증조부 김석진과 그의 뜻을 본받아 오현에서 자손들을 데리고 가학의 뜻을 펼쳤던 조부 김영한의 정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학의 정신은 병자호란 때 죽음을 불사하고 절의를 지키려 했던 김상용·김상헌 대에 형성된 것으로서 三壽(김수증, 김수홍, 김수향)와 六昌(昌集·昌協·昌翁·昌業·昌緝·昌立)으로 이어지고 있고, 7대조 김학순을 거쳐 5대조인 창녕위 김병주에게로 이어지며, 20세기 김영한에 이르러서는 오현을 중심으로 일중가의 문예로 펼쳐진다. 거기에는 서예뿐만 아니라, 절의, 시문, 금석, 전각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문예의식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일중가의 역사를 모르면 일중서예의 진수를 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일중이 살았던 오현은 서슬 퍼런 일제치하에서도 민족의 얼을 깨끗하게 지킨 곳이었다. 오현에는 4대가 모여 대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우리 고유의 풍습을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망국의 한을 품고 국혼을 회복하기 위해 후손들의 교육에 힘썼던 조부 김영한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일중서예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애국은 총이나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일중서예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서예가의 연구가 아니라, 민족혼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느낀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소득이었다.

일중은 활동기간이 길고 한국서예에 공헌한 부분이 많으므로 그것을 간추려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 후학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행적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일중서예가 남긴 공헌을 드러내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중의 ‘서예교본제작’은 단순한 의미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헌’의 첫 부분에서 밝혔다. 교본 중에서도 1942년에 제작된 『우리 글씨 쓰는 법』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제시했다. 앞서 밝혔듯이, 일중이 중등학교에 들어간 1938년은 일제의 한글탄압이 날로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일중이 『우리 글씨 쓰는 법』을 저술한 1942년은 조선어학회 회원을 검거하여 29명을 구속하고 조선어학회가 발행하던 학회지 『한글』을 폐간시킨 해였다. 이 시기에 일중은 우리의 글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연구물을 책으로 내고자 했다. 당시 한글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부흥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글을 표현하는 우리의 글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일중은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해냈다. 일중의 많은 행적 중에서 ‘서예교본제작’을 처음에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중은 그 후에도 한글의 제자원리와 한글 고체를 보완하면서 좀 더 개량화된 서예교본을 만드는 데 힘썼다. 1983년 출간한 『우리 글씨 쓰는 법』은 40년 동안의 연구를 완결짓는 최종본으로 한글서예의 기법과 이론을 조화롭게 다룬 명저로 평가된다.

둘째, 일중서예의 공헌으로 ‘고체창조’를 소개했다. 한문서예는 역사도 오래고 글자를 만든 원리도 다양하며 조형성이 풍부하나 한글은 한자와 비교할 때 역사도 짧고 자형도 간략하다. 이에 일중은 한자와 달리 한글 서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찍부터 고민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일중은 고체창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일중은 고체를 창조할 수 있는 근거를 1942년 정인보가 써준 『우리 글씨 쓰는 법』 서문에서 발견했다. 일중은 12세 때부터 궁체를 공부했다. 동아일보 주최 제8회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에서 궁체로 賞(우수상)을 받았고, 이것은 일중이 서예의 길을 걷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그리고 20세 전후에는 궁체를 탈피하여 강건하고 남성적인 풍모를 느끼게 하는 自家體로 일가를 이룬다. 그러나 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연약해 보이는 작은 글씨 위주의 궁체로만 만족할 수 없어 고체를 개발하게 된다. 일중의 고체는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거기에 전서와 예서의 호흡이 가미된 창조적인 서체였다. 일중의 고체창

조는 한글서예의 영역을 넓혔다는 데서 그 공로가 인정된다.

셋째, ‘창신의 서예’를 거론했다. 일중의 궁체와 고체는 고전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가미하여 자기의 서풍으로 승화시켰다. ‘창조가 아니면 예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중의 한글은 창조적인 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그가 28세에 예술위원이 되고 서예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도 한글을 잘 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중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준 글씨는 오히려 한문서예였다. 일중의 예서는 김세호가 지적하듯이 漢隸가 지닌 멋을 충분히 살리고 있다. 한나라 이래로 중국의 예서가 퇴행기로 접어들었다. 그런 예서가 한국에서 다시 일중에 의해 꽃을 피운다. 일중은 한예가 지닌 격조를 잘 소화시키면서 자기화에 성공한 작가라 할 수 있다. 일중은 행초에서도 큰 성취를 이루었다. 일중의 행초는 날이 갈수록 전서와 예서를 끌어들이며 5체가 지닌 멋을 하나로 녹여 融會하였다.

넷째, 『槿域書譜』의 출간이다. 이것은 1967년 신아일보의 부탁을 받아 1년 이상 연재한 것으로 서예가로만 알려져 있던 일중의 또 다른 면모를 생각하게 한다. 일중의 『槿域書譜』는 오세창의 서화사연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불리워지는 『槿域書畫徵』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많은 문헌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인물선정에 있어서도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을 세워 150인 중에서 34인을 스스로 선정하였다. 일중이 추가로 선정한 34인 중에는 특별히 절의와 관계있는 인물이 많다. 필자는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槿域書譜』에 절의와 관계되는 인물이 많은 이유가 일중 가문의 가학의 배경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槿域書譜』는 신문에 실린 150편의 칼럼이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 11월 일중선생기념사업회에서 일중선생10주기추모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윤문과 시문번역을 거쳐 『槿域書譜』가 새롭게 탄생했다. 『槿域書譜』는 일정분량의 신문 연재물로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한 최초 장편 서예인물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서예의 정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대한 문헌자료를 통해 작가를 조명하고 있어 서예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著書類]

- E.H.카 저, 김택현 譯.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2007.
- 경인유목편집위원회. 『褻人遺墨』. 서울: 태화출판사, 1990.
- 김숙년. 『아버지 유채꽃이 참 고와요』. 서울: 삶과 꿈, 1995.
- 김충현. 『槿域書譜』. 서울: 한울애플러스, 2016.
- 김충현. 『藝에 살다』. 서울: 범우사, 2000.
- 김충현. 『우리 글씨 쓰는 법』. 서울: 백악미술관, 2009.
- 김충현. 『일중 김충현 쓴 한글서예』. 서울: 시청각교육사, 1978.
- 김충현. 『일중 김충현 한글서예』. 서울: 일중선생기념사업회, 2013.
- 김충현. 『펜습자』. 밀양: 東明社, 1952.
- 마틴 메이어 著, 김효정 譯. 『최고의 교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북하우스, 2015.
- 유준영, 이종호, 윤진영 공저. 『권력과 은둔』. 서울: 북코리아, 2010.
- 윤경희. 『蒼涯遺稿』. 서울: 이희, 2011.
- 이덕일. 『살아있는 한국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3.
- 이만열. 『한국사연표』. 서울: 역민사, 1996.
-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일중 김충현』. 서울: 백악미술관, 2012.
- 임창순, 이구열, 이흥우 공저. 『韓國現代書藝史』. 서울: 통천문화사, 1981.
- 진보교육연구소 비고츠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서울: 살림터, 2015.
- 하워드 가드너 著, 임재서 譯. 『열정과 기질』. 서울: 북스넛, 2013.

### [論文類]

- 김세호. “일중 김충현의 서예.”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기념특별전 일중 김충현』. 예술의 전당, 1998.

권창륜. “일중 선생의 생애와 예술.” 『일중김충현 서집』. 경미출판사, 1981.

최완수.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한벽문충』 창간호(1992). 월진미술관.

최완수. “石峯·秋史 잇는 조선후기 書脈의 적손.” 『藝에 살다』. 범우사, 2000.

[新聞類]

동아일보. 1938년 6월 4일, 10일.

동아일보. 1939년 6월 7일, 14일, 21일.

